

한국 교회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Stress Experience of Foreign Ministers in Korean Churches

전윤조 (Youn-Joe J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henomenological nature of the stress experience of foreign ministers and to elucidate its meaning. To this end, six foreign church ministers working in Korean churches were selected for in-depth interviews.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was used to reveal the nature of the stress experience of foreign worker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 experience factors of stress experienced by foreign ministers are divided into 5 components and 13 subcomponents. The five components were classified as relational stress, ministry stress, personal stress, stress coping method, and desire for the Korean church. To summarize the subcomponents, the study participants experienced not only ministry stress, but also interpersonal and personal stress in the field of ministry. In addition, there is no joy in the distrust and disrespectful attitude of Korean ministers and members toward themselves as ministers, and limitations in their roles, as well as experiencing psychological conflicts about ministry. Nevertheless, they found that they were overcoming stress through the support group, and that they were supporting their lives as ministers by relying on God's promises.

Key words : foreign ministers, stress experience, Korean church, migrant missions, phenomenological study

* 2021년 11월 11일 접수, 12월 20일 최종수정, 12월 20일 게재확정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일반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기독교교육학 전공) 박사과정수료,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194(동삼동), younjoe@daum.net

1. 서론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다양한 외국인의 유입은 한국 사회를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그만큼 타문화에 대한 개방과 수용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KD한국 교회희망봉사단(2013)의『이주민선교에 기초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교회적으로도 이주민을 선교 대상으로 삼고 사역하고 있는 교회와 기관, 그리고 단체 숫자는 총 575개로 조사되었다.

초기 이주민 사역은 시대적 필요와 요구에 따라 한국인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까지도 이주민 선교를 위한 사역자 육성에 대한 연구(구성모, 2020)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인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특수한 영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상황에 따라 리더십을 육성해야 한다(구성모 외, 2015; 윤대진, 2016)는 요청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윤대진(2016)과 구성모(2015)는 외국인 사역자를 한국인 사역자들과 함께 목회적 훈련을 함으로써 한국인 사역자들의 조력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 교회가 가진 좋은 전통을 이해하고 배움으로써 한국에서는 물론 자신의 국가와 연계된 사역에도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더 나아가 석창원(2016)은 한국에서 장기 체류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귀화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고, 자발적으로 동화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문화를 고수하면서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가기 원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주민 리더십이 충족되면 그들만의 독립적인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다문화 사회의 진입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기관의 숫자를 증가시켜 자연스럽게 외국인 사역자의 리더십이 요청되고 더불어 이주민 사역에 자리 매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사역자의 사역적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그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사역, 그리고 선교 전략에 대한 연구에 비해 외국인 사역자 자체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 교회 목회자의 스트레스와 탈진, 그리고 우울증 등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있어 왔으며(고병인, 2004; 김준수, 2007; 오탉균, 2009; 이관직, 2009; 하재성, 2015),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도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김세경, 2018; 서한비 외, 2018; 이안나 외, 2019). 그러나 한국 교회라는 독특한 상황 가운데 존재하는 외국인 사역자들에 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 이주민 선교 사역을 위한 외국인 사역자의 필요와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그들에 대한 연구는 불가피하다. 외국인 사역자들은 한국이라는 이질적인 문화 안에서 그 사역의 대상이 한국인이든, 모국인이든, 그들은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게다가 한국인 사역자가 겪는 스트레스도 함께 경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주민 선교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으면서도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사역자가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와 그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동역자인 외국인 사역자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 교회 내 외국인 사역자

일반적으로 이주민이란 그 지역에 터를 두고 산다는 의미로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불리고 있다. 본래는 외국인 노동자로 지칭되다가 결혼과 이민 등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이주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이로 인해 입국한 사람들 모두를 통상적으로 이주민이라고 칭한다. 또한 국내와 외국이라는 지리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고, 외국인을 주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고로부터 그렇게 불리고 있다(구성모 외, 2015: 20). 그러나 이미 정부기관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이주민을 ‘외국인’으로 지칭하여 정책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다. 선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주민 사역자’는 일반적으로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한국인 사역자를 가리킨다. ‘현지인 사역자’라는 호칭도 한국에서는 한국인을 지칭함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한국 교회 내 사역하는 외국인을 지칭하여 ‘외국인 사역자’를 사용하기로 한다.

윤대진(2016)은 국내 이주민 선교 사역국가에 비해 외국인 사역자가 턱없이 부족하므로 외국인 사역자 양성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열악한 이주민 선교 단체가 외국인 사역자를 임용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사역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GMS 다민족사역연합체(2020)의 보고에 의하면, 이주민 사역은 대부분 한국인 사역자가 책임자로 운영되거나 혹은 외국인을 동역자로 두고 있다. 70여 처소에 함께 사역하는 외국인 사역자는 약 1/3에 달한다. 연구자는 몇몇 국가별 외국인 사역자들의 SNS 연락망을 통하여 사역자 통계를 대략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중국(동포 포함) 250명, 러시아 약 100명, 몽골 약 50명, 베트남 35명, 인도네시아 약 25명, 캄보디아 10명, 방글라데시는 약 3명 등 총 8개 국가의, 약 473명의 사역자가 사역 중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타 교단과 집계되지 못한 나라의 사역자를 고려한다면 그 수가 적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사역자들은 한국에서 신학과 관련된 학업을 하면서 동시에 교회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다. 외국인인 그들이 한국에서 학업과 사역을 병행할 경우 자연스럽게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오는 다양

한 스트레스를 직면할 수 있다. 또한 고국에서 목회의 경험이 전무 하거나 한국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을 경우 스트레스는 자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한국 교회의 이주민 선교뿐만 아니라 사역의 다방면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2.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Hiebert(2018)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회의 개인과 집단을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변화의 모든 것을 문화적응으로 보았다. 외국인 사역자에게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은 일상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외국인은 관광객의 단계에서 문화 충격의 위기에 해당하는 각성의 단계, 회복의 단계, 적응 단계, 즉 문화 충격의 4단계를 지난다. 이때 문화 충격의 진짜 문제는 스스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심리적 왜곡이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일그러뜨리고, 몸을 황폐하게 만든다(Hiebert, 2018: 97).

Tom O'Bryan(2019)은 1950년대, Hans Selye 박사에 의해서 최초로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긴장문제와 연관시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Hans Selye는 1955년 의학저널 <Science>에서 스트레스와 과로로 소진된 교감신경계가 관절염, 뇌졸중, 심장질환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다(O'Bryan, 2019: 221). Aldwin(1994) 또한 스트레스가 사람과 환경의 여러 작용을 통해 생성되며, 심리적 또는 생리적인 고통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Oswald(2007)의 주장과 같이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신체적 반응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더 세부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하여 Berry(1991)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양상을 포함하며, 불안이나 우울 등의 정신건강 상태, 소외감, 신체적인 증상, 정체성 혼란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Hiebert(2018)는 타문화에서 문화 충격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각종 질병뿐만 아니라 심리적, 영적 우울증에 시달리게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결국, 우리 모두는 스트레스와 환경이 어떠한 연관이 있으며,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예상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에 대한 스트레스 경험(서한비 외, 2018)은 한국문화의 특별함, 한국어의 이해 부족감, 학업에 대한 중압감, 사회적 관계의 미흡함, 경제적 부담감이라는 스트레스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특히 새로운 문화적응에서 오는 스트레스 경험은 우울과 불안처럼 심리적으로 취약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이안나 외, 2019). 한국 교회 사역자는 일중독, 심리적 불안정, 비교의식, 권위주의, 자기 비하 등과 같은 내면적 요소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업무시간, 긍정적 피드백의 결여, 가정을 위한 시간의 부족, 비현실적인 기대, 낮은 급여, 휴식의 박탈, 일정조절 능력의 상실, 불분명한 업무의 역할 규정, 사역에서 오는 긴장과 스트레스 등 조직 환경에서 탈진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이관직, 2009). 미국의 성직자의 경우는 성격 유형, 질병, 우울증 및 스트레스

민감성 및 개인 업무 기능 장애 등 스트레스의 내부적인 요인과 역할의 모호성, 과도한 사역 시간의 불균형, 갈등, 사역 결과에 대한 평가, 가족이슈, 사회적 지지의 부족, 불충분한 재정, 배우자 역할의 모호성, 재배치 등 외부적이 요인, 그리고 다른 영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였다(Gauger, 2012: 27-42).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문화가 녹아 있는 한국 교회 내에서 외국인 사역자가 사역할 때 경험하는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 사역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타문화권으로 진입할 때 경험하는 고통과 일종의 역기능 즉,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Berry, 1997)을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 사역자들은 한국 교회라는 독특한 환경에서 사역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험을 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20세기 초 Husserl의 현상학은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또한 주어진 사실성에서 출발한다. 인간과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자연적 태도에서 세계와의 직접적이며 원초적인 접촉으로 되돌아가는, 엄밀히 말하면 철학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보고이다(신경립 외, 2013: 13). 현상학적 시각에서 주요 관심사는 ‘개인의 경험에 대한 이해’로 인간 경험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료를 얻고자 질문을 한다. 전형적으로 그 현상을 경험한 참여자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와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통합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자료를 얻고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여러 단계를 거쳐 결국에는 모든 개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현상에 대한 경험을 기술하게 된다(Creswell, 2018: 102).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대한 경험의 ‘본질’을 연구하는 총체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현상학적 연구의 특징은 첫째, 개인의 경험과 현상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하여 연구자의 가치 판단과 추측, 가정을 배제한다. 둘째, 개인의 경험과 본질 탐색을 위해 주로 심층 인터뷰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현상학적 반성과정으로 자료를 분석한다. 셋째, 현상의 경험을 명확히 서술하는 것으로 이론이나 모델을 만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조성남 외, 2017: 131). 이에 따라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처한 상황에서 깊고 정확하게 다가가도록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이 경험한 스트레스의 본질과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1. 연구 참여자

신경립(2013)은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따라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참여자 선정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목적표집방법(Charlick et al., 2016), 즉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참여자들은 한국 교회 내 교회 사역을 하고 있으며, 그 경험을 한국어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외국인 사역자 6명으로 구성하였다. 참여자 중 한국 교회에서 사역경험이 짧은 경우에도 이미 한국 교회를 2년 이상 경험한 자에 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은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이며, 모두 아시아계 외국인 사역자들이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정보는 Table 1과 같고, 한국 교회 내에서 사역하는 외국인 사역자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 이유로 인해 노출되기 쉬운 개인 신상에 대한 보호요청과 선교 차원의 보안유지를 위해 국적은 기록하지 않았다.

Table 1. Basic informa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대	지역	한국 교회 사역경험	학업 관련
참여자 1	남	30대	부산	6개월	석사 과정
참여자 2	남	20대	울산	2년 6개월	석사 과정
참여자 3	남	20대	경남	2년 6개월	학부 과정
참여자 4	여	20대	경기도	2년 6개월	석사 과정
참여자 5	여	30대	부산	3년 6개월	박사 과정
참여자 6	남	30대	경남	10년 이상	박사 과정

2. 자료 수집과 방법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6명의 연구 참여자들에게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2020년 7월 22일 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1회, 혹은 1회 이상으로 더 이상 새로운 주제가 드러나지 않고 포화될 때까지 이루어졌으며, 인터뷰 구성 시간은 약 90분에서 120분간 실행하였다.

자료 수집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전 연락을 취하여 연구주제와 목적, 그리고 자료수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와의 라포 형성을 위해 이미 식사와 티타임 교제를 나눔으로써 서로에 대해 오픈할 수 있는 관계를 가져왔다.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와 시간을 조율하여 참여자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비교적 조용한 커피숍에서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가운데 1명

은 COVID 19로 인해 지역적 방문이 어려움으로 외부의 간섭이 없는 공간을 활용하여 화상 인터뷰를 실행하였다.

연구자는 “외국인 사역자로서 한국 교회에서 어떤 스트레스 경험했습니까?” “당신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스트레스가 준 영향은 무엇인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스트레스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나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나요?” “스트레스 경험이 당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한국 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와 같이 미리 준비한 질문을 활용하여 반구조화된 형태의 자연스러운 면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시 연구자가 원하는 답을 유도하거나 암시를 주지 않도록 참여자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내용은 녹음하였고, 참여자의 언어적 표현 외에 비언어적인 표현에도 주의를 기울여 듣고 관찰 한 후, 그 내용을 함께 기록하였다. 그리고 면담 종료 후 소정의 감사 표시를 하였다. 면담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전화 통화나 문자로 추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자료 분석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 중 Giorgi(1994)의 검증 방법은 인간 경험의 맥락에서 그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참여자 개개인의 시간적 맥락과 상황적 독특성, 그리고 개별적인 구조를 드러내 주는 네 가지의 필수 단계로 이루어진다.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전체적 내용의 인식단계로 녹취 자료를 반복해서 듣고, A4용지 약 20장 이상의 전사 자료를 반복하여 읽는다. 그리고 모호한 부분은 참여자들에게 확인하여 인터뷰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두 번째 단계는 전사된 연구 자료의 대략적 내용 파악이 아닌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자체에 집중하여 읽으며, 스트레스 경험 진술과 의미의 변화가 드러난 부분에 표시하고, 심리학적 의미로 전환되는 현상의 의미 단위를 구별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의미를 추출하고 구분, 분리하는 단계를 거듭 반복한다. 세 번째 단계는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의미 단위들을 학문적으로 변형하여 현상에서 그 내용이 비약되거나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연구자는 타문화권 적응과정에서 추측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선지식이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이러한 추측과 가정을 배제하기 위해 괄호치기(Bracketing)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사역자들의 스트레스 경험 구조와 의미 단어를 원 자료와 비교하는 작업을 통하여 다시 묶어 하위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하위 구성요소들을 통합하여 스트레스 경험의 의미를 잘 보여주기 위한 구조적 기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사실들을 일반적인 구조로 제시해 보았다.

4.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성

김영천(2012)은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가 직접 자료 수집하고 자료의 분석 과정을 실행해야 함으로 연구자의 자질과 역량을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따라서 연구자는 ‘한국 교회 내 사역하는 외국인 사역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료들을 선행연구 하였다. 그리고 현상학적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계획부터 연구 방법론에 대한 서적과 논문을 선행연구 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의 타당성 검토와 검증 기초자료(신경림 외, 2013)에 따라 자료 수집 과정에 대하여 의도적인 점검과 확인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구하기 위한 탐색과 적극적 관찰, 그리고 상황을 그대로 반추해내는 인지적 과정이 있었다. 또한 그 의미를 찾고, 자료를 비교, 대조, 분류하였으며, 추론과 증명, 정정과 수정하는 종합적인 탐구 현상을 거쳤다.

질적 연구는 삶의 맥락과 의미의 이해, 그리고 다양성과 주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관점에 대한 수용능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관점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자료 분석 과정에서 장기간 타문화권에서 거주하며 축적된 연구자 자신의 개인적 가치관, 혹은 선입견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판단을 중지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전사 자료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은 참여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단계별 분석 과정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제시되었는지 확인을 받았다. 그리고 분석이 완료된 후, 상담학 석·박사와 외국인 사역자 3명, 그리고 지도교수에게 교차 검증을 실시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IV.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에서 먼저 도출한 공통된 의미 단위들과 하위 구성요소들을 통합한 결과 스트레스 경험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공통된 의미를 관용적 단어와 문장을 활용하여 재통합하는 자료 분석과정의 순서에 따라 도출하였다. 외국인 사역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관계적 스트레스, 사역적 스트레스, 개인 스트레스로 3개의 스트레스 관련 구성요소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식, 한국 교회에 대한 바람으로 총 5개의 구성요소와 13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이루어졌다.

Table 2. Components of the stress experience of foreign ministers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의미 단위
관계적 스트레스	사역자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 목사의 높은 기준과 요구, 강압적 태도로 지적, 평가함 - 배려와 이해심 부족 - 모범이 되지 않고 이상적인 것을 요구하는 이중성 - 여성사역자에 대한 편견
	성도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역자로 인정하지 않고 장학생으로 생각하고 질투, 평가함 - 도와줘도 부담스러움 - 나이, 위치에 대한 고려로 자연스러운 관계 맺기가 어려움 - 현지 성도와 한국 교회 사이의 갈등조절에 대한 부담
사역적 스트레스	업무의 부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역에 대한 지침과 지도 없이 맡는 일과 많은 예배 참석 - 한국어로 설교와 찬양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 - 예배 참석 성도 수에 대한 부담감 - 언제나 주목과 판단 받는 사역자의 위치
	사역적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사용과 사역의 권한 부재, 성과위주에 기반 한 협조 - 사역전문가가 아닌 직분자들의 존중, 신뢰 없는 지도와 관리 - 목사와 담당 집사 사이에서의 불편한 소통 - 재정, 사역 요청을 위한 절차가 길고 복잡함
	한국 교회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층적·수직적 구조에 기반 하여 요구되는 무조건적 순종 - 교회의 직분에 따른 호칭이 익숙하지 않음 - 제도와 예의(눈치, 존중)가 혼합된 절차로 혼란스러움
개인적 스트레스	심리적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쁨 없는 사역으로 주말이 부담되어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음 - 실패자, 낮은 자존감, 자기부정, 그리고 죽음까지도 생각함 - 사역을 포기하고 어디든 가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음 - 힘들어도 속마음을 터놓고 말할 곳이 없음
	경제적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사용에 대한 간섭과 조언 - 낮은 사례로 생활이 어려운데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고 함 - 학비, 사역비 후원받는 것이 조심스럽고 자립하고 싶음 - 부모님,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과 미래에 대한 고민
	학교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움 - 한국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못해 친구가 없어 외로움 - 지도교수의 부당한 요구가 트라우마로 남음 - 장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직원의 부당한 대우와 하대
	건강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피, 두통, 머리 빠짐 등 신경증으로 치료받음
스트레스 극복 방식	지지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성도와의 관계 및 교제 - 교수님, 한국어 교사, 동역자, 가족의 격려와 지지
	신앙적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함 - 상담실 이용, 책읽기, 일기와 SNS로 표현
	사역의 열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 : 부르심에 순종, 목회적 지식과 경험, 사역자로 세워짐 - 사람들 : 사역에 사용되어 풍성한 은혜와 기쁨으로 보람 느낌
한국 교회에 요청	겸손과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손한 자세로 본을 보이며 진정한 협력자로 존중해주길 - 다양한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포용 - 한국 교회 문화와 소속교회 소개 및 교육의 필요

1. 관계적 스트레스 경험 : 갈등 관계와 자신에 대한 평가

외국인 사역자의 관계적 스트레스 경험은 갈등 관계와 자신에 대한 평가 현상으로 나타난다. 먼저 갈등 관계 현상은 담임 목사나 부교역자들의 높은 기대로 인해 발생한다. 그들은 생활 속에서 한국 목회자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자주 경험하며, 그 기대와 요구에 다다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좌절감을 느낀다. 또한 그들의 강압적인 태도는 외국인 사역자에게 사역에 대한 가르침이라기보다 인신공격으로 느껴지게 한다.

“우리가 일하면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목자님은 완벽주의라서.. 진짜 목사님이랑 일하면 힘들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야 하니까요. 저는 항상 조심해요. 저한테 비난을 돌릴까봐. 믿어주고 존중해줘야 하는데 너는 이거 부족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물론 그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요구하고 또 지적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하기 싫어요. 일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하고 싶은 거예요.”(참여자 6)

외국인 여성 사역자의 경우 여성 사역자를 무시하는 발언이나 예의를 갖추지 않는 모습을 통해 한국의 남존여비와 같은 문화적 요소에서 비롯된 태도를 경험한다. 그들은 “시집이나 가지 뭐 하러 신학을 공부 하나.”는 말을 듣기도 한다. 사람들은 외국인 사역자가 한국어를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린아이로 치부하거나 배려와 이해심 없는 태도, 혹은 하대하는 어투로 대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외국인 사역자들은 깊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이 한국 사역자들과 성도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것을 시작으로 사역이 부담스러워지고 관계의 실패감을 경험하게 된다.

두 번째로 자신에 대한 평가 현상이다. 외국인 사역자는 교회에서 공공연히 알려진 장학생으로 성도들의 관심과 도움을 받는다. 그들의 학업상황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 재정적인 상황 등 개인적인 부분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되며 평가 받는다. 외국인 사역자의 삶은 마치 교회 내 펼쳐진 오픈 북과 같다. 외국인 사역자들은 한국 사역자들과 성도들로부터 관심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저런 간섭과 평가, 그리고 판단에 시달리면서 언행을 조심해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한다. 따라서 외국인 사역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된다.

한국 성도의 나이를 모른 채 친근한 친구처럼 대했다가 성도로부터 혼쫓이 난 후부터 한국인을 만나면 무조건 몇 살인지 부터 묻거나 아예 거리를 둔다는 경험도 있었다.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20, 30대의 외국인 사역자는 어눌한 한국어를 하는 학생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예의 바른 모습을 갖추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야 한다. 한 참여자는 성도

의 후원과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자신에 대한 평가 때문에 개인 스케줄이 흐트러짐을 감수하고도 항상 ‘예스맨’이 되어야 한다며 허탈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특히 그 대상에 있어서 나이가 많은 성도들을 대할 때는 자신의 행동이 한국 문화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자신이 했던 말이 괜찮은지 아닌지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한다. 이처럼 관계에 필요한 한국문화의 복잡한 예(禮)는 성도와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한다. 그리고 이후에 있을 자신에 대한 평가는 스트레스를 낳게 하고, 이 때문에 사역자나 성도들에게 형식적인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여기는 뭔가 해야라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 사람에게 농담으로 했는데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이거는 문화차이구나.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때부터 나이 많은 사람이면 친구 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수할까봐. 실수하면 서로 다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 저는 마음의 문이 닫혀서...”(참여자2)

2. 사역적 스트레스 경험: 사역에 대한 부담과 제한

외국인 사역자의 사역적 스트레스 경험은 사역에 대한 부담과 사역적 제한으로부터 나타난다. 고국에서 사역적 경험이 전혀 없이 단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 입국한 경우나 갑작스럽게 누군가의 추천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사역적 부담은 더 커진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목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교회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외국인 사역자들은 교회 운영 흐름을 대충 눈치로 파악하고 있었다. 사역대상이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일 경우 그 스트레스는 가중된다. 한 참여자는 새벽예배 차량 운전부터, 일주일에 3-4번 한국어 설교와 학업까지 병행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경험을 호소하였다. 한국 교회 사역자들은 자신의 일이 많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외국인 사역자에겐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사실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내가 OO사람인데 한국말도 잘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어로 한국 사람에게 설교하는 거, 와~ 그런 건 진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안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면 제가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또 고민하고...”(참여자3)

특히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사역의 가시적인 열매에 대한 부담은 극심하다. 한 참여자는 각 부서의 예배 참석 인원 숫자가 사무실 칠판에 집계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비교가 되고, 숫자적으로 사역적 성과가 없으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민감한 반응도 하였다. 그리고 예배 참석

성도 수가 적을 경우는 사례비를 받는 것조차 미안하고, 그렇다고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스트레스만 받게 된다고 토로한다.

다음으로 외국인 사역자는 사역적 제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사역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러면서도 부서를 담당하는 직분자의 관리와 감독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가장 힘든 점으로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성도에 의해 사역이 관리 되는 경험을 자주 한다. 사역에 필요한 재정사용에 권한이 없으며, 심지어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를 요청하는 절차는 길고 복잡하다. 허락을 기다리다가 시간은 가고 어쩔 수 없이 되는 대로 사역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외국인 사역자는 사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역적 장애물을 직면한다.

“교회절차는 조금 복잡하고 어떤 때는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교육방법, 예배드리는 형식, 보통은 교회에서 하면 되는데, 어느 날 약간 새롭게 하고 싶고 뭐 그렇게 밖에서 뭐 하고 싶으면 여러 가지로 물어봐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보통은 따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할 수 없고, 먼저는 행정목사님, 행정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 드리고, 만약 행정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기억하지 않으면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요.” (참여자1)

외국인 사역자들은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은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하면서도 유독 한 부분에 대해서 극심한 스트레스 경험을 호소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설교에 대한 지적이다. 외국인 사역자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담당자는 외국인 사역자가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사역자는 담당 집사나 장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교회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감안하고 이해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회가 청빙한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담당 직분자의 태도로 인해 자신의 역할에 혼란을 느낀다. 외국인 사역자는 불분명한 사역적 역할과 제안으로 사역자로서 존재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에서 저를 뽑는데, 또 신학교 신학생이라서 뽑아주는 거잖아요. 안 믿어주면 왜 뽑는지, 그리고 이렇게 뽑아주는데 여기 와서 설교하는데 (그 내용을 옆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저한테 좀 당황스러웠어요. 굳이 제 눈앞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하면 너무 안 믿어주는 느낌 드는 거예요. 설교 내용도 일 년 설교 계획 제출하라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 예배부에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많이 헷갈렸어요. 사실 제 생각에는 제가... 2년 동안 신대원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지만 집사님은 신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

고. 그런데 왜 이렇게 저한테 요구하는지...”(참여자5)

외국인 사역자에게 사역자나 직분의 상하관계는 한국 교회의 특별한 것으로 경험되고 있다. 유교 문화에 기반 한 인간관계와 하야라키를 지향하는 한국 교회 제도 안에서, 현지 사역자는 복잡한 직분과 권위에서 나오는 긴장감을 경험한다. 그들은 사역적으로 제한이 있더라도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처럼 외국인 사역자는 한국 교회에서 여러 사역적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더불어 사역적 제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직면하고 있다.

3. 개인적 스트레스 경험: 심리적 갈등과 삶에 대한 책임

외국인 사역자의 개인적인 스트레스 경험은 사역과 학업에 대한 심리적인 갈등과 삶의 책임에 대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가장 두드러지는 경험은 교회 사역자로서 일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으로 외국인 사역자에게는 큰 고통이자 딜레마이다. 그들은 주말이 되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부상한다고 했다. 정신없이 반복되는 주일 예배와 사역은 마치 회사를 다니는 것과 유사하다고 느낀다. 완벽주의 성향의 담임 목사나 사역자들에게 사역과 개인적인 면에서 지적과 꾸중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고 혼자 울기도 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도 쉽지 않다. 그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도 않은 개인적인 좌절감과 우울감, 그리고 실패자라는 느낌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 자기 부정, 심지어 죽음까지도 생각한다.

“거기에서(교회에서) 사람들이랑 지내는 게 진짜 너무 힘들고, 진짜 많이 외로워요. 외롭고, 같이 대화 할 사람도 없어요.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도... 교회 창문 딱 열고 멀리 쳐다보면서, 우울한 표정으로, 우울한 마음으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 교회는 나를 그때는 사랑해주고 또 나를 인정해줄까... 이런 거. 진짜 마음이 울컥하면서 죽고 싶은 마음 있었거든요.”(참여자6)

한 참여자는 사역을 내려놓고 평신도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다고 한다. 사역자로서 겪는 딜레마로 인해 자신의 처지와 믿음 없음을 탓하고 한탄하는 것이다. 외국인 사역자는 한국인 목회자와 다르게 자신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평가, 그리고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누구와도 쉽게 이야기 하지 못하고, 결국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 사역자의 개인적 스트레스는 생활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다. 외국인 사역자의 경우 학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사례비는 더 부족하다. 한 참여자는 ‘소를 사용하려면 먹이도 줘야 한다.’

는 고국의 속담을 들며 자신이 느끼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설명하였다.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재정 사용에 대한 간섭과 조언까지 듣기도 한다. 심지어 개인 통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목회자의 요구도 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학비, 사례비를 언급하며 사역자에게 압박감을 주기도 한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거 자주 말하니까... 아, 전도사님 우리 교회서는 학비, 생활비 이런 것도 주고 잘 해주잖아요? 그러니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일 잘 해야 돼요, 라고 하고, 만약에 우리교회에 일하는 거 싫다면, 더 좋은 교회 있으면 다른 교회기도 좋아요, 라고 해서... 제가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아! 내가 이 교회에서 후원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참여자3)

참여자들은 가끔 번역과 같은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낮은 사례를 받으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는 교회의 요구 때문에 달리 경제 사정이 나아지기 어렵다고 한다. 반면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 타 학과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을 보며 부러움을 느낀다.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한국인 사역자에 비해 풀타임으로 일하는 자신의 사례비가 더 적은 것을 보고 합리적이지 않은 처우와 차별을 경험한다. 한 참여자는 성도들은 교회가 외국인 사역자들을 알아서 챙겨 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학교에서 좀 도와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아무도 그들의 재정상태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를 것이라고 했다. 재정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외국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장 절실하게 보여주는 현실적인 책임에 대한 경험이다. 외국인 사역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수고하며, 정당한 대가를 받고 땀 흘리는 보람을 누리길 원하는 생각이 항상 마음 한켠에 있다고 한다.

외국인 사역자에게 학교는 학업에 대한 책임의 현장이다. 학교 직원의 부정적인 말투와 표정, 차별적인 태도에 대한 경험도 스트레스로 남는다. 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는 교회 목사님의 요구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학교 수업은 언어로 인해 항상 부담스럽고, 따라가기 쉽지 않은 범위로 선택과 포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한국어와 전공수업을 잘 해내고 싶지만 그것도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 참여자들은 학업에 있어서 긴 시간과 노력, 그리고 깊은 슬럼프를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교수님이 강의할 때는 알아 듣는데, 근데 외울 수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50페이지, 100페이지, 잘 하는 사람들(한국사람)은 아마 책 한권도 읽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주말까지 해도 책을 완전히 읽을 수 없어요. 한두 단원 여러 번 읽어서 내용에 익숙하게 하고 다른 건 포기해

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걸 외울 수 없으니까요...”(참여자3)

설새없이 돌아가는 사역업무는 외국인 사역자에게 심리적 불안에서 오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까지 야기한다. 사례비 부족으로 부모님이 아파도 도울 수 없을 때, 제대로 먹지 못하여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때 참여자들은 좌절을 느끼고 신체적 고통을 호소했다. 외국인 사역자는 머리가 많이 빠지거나, 약을 먹어도 두통이 해소되지 않거나,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 신경외과를 찾기도 한다. 외국인 사역자들은 경제적 부담과 학교생활, 그리고 자신의 건강과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직면하고 있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매일 눈치 보면서 긴장하고 와~ 진짜. 저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보통 아니예요. 전에는 몸이 그렇게 반응한 적이 없어요.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을 때는 온 몸이 다 아파요. 이게 갑자기 나이트 사람처럼... 진짜 나이트 사람이라면 입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저는 몸이 아프고 이상하게 되더라구요. 며칠 동안 스트레스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진짜 계속 심장이 쿵쿵쿵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참여자6)

외국인 사역자들은 ‘몸이 많이 힘들고 지쳐있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이러한 현상은 심리적 고통과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적인 감정이 함께 병행된 결과로 볼 수 있다.

4.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극복 방식: 지지 그룹과 신앙적 관점

참여자2는 고국에서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한국생활 초기에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할지도 몰랐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먼저 일상생활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학교 상담실이나 아는 교수님을 찾아 상담을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주목할 점은 협력자들이나 지인과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정규 교제 모임을 가지면서 스트레스 극복을 경험한 것이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또다른 소그룹 공동체의 지지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교회 공동체 내부에 지지 그룹이 있음을 인식하였고, 더욱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갖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제 상태는 토요일(교역자 모임)을 너무 기대하고,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하고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너무 즐기고... 지금 너무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교회에 안가고 싶고. 사

실은 이 전도사 사역 그만 두면 이거(관계가) 저한테 너무 소중한데... 만약 제는 전도사 아니라면 이 사무실안에 있지도 못하고,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사님들 만날 수도 없고....”(참여자5)

외국인 사역자들은 스트레스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된다. ‘혼자’라는 감정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을 때 그들은 먼저 주님을 찾는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죽고 싶다는 극단적인 절망 속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함을 경험한다. 즉, 그들은 자기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근거 설정을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교제에서 발견한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제 생각에는 어디에서나 혼자 가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일할 때 충분히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걸 느낄 수 있어요. 내 나라에서는 걱정 안 해요. 내 나라야. 그냥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여기는 뭔가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요.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는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참여자2)

외국인 사역자는 학업과 교회 사역을 통해서 목회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로써 자신이 사역자로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크게 감격하고 감사했다. 그리고 스스로를 고국의 복음화를 위해 부름 받은 자로 여겼다. 사역의 열매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사역의 귀중함과 사역자로서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극한 스트레스도 견딜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고, 이 시간을 더 잘 극복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학업과 사역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그분의 약속이 성취 되고 있음을 확신 한다. 그리고 그들의 조국이 복음으로 새로운 나라가 될 것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갖고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단단한 군사가 되도록 훈련된다는 관점의 전환도 경험한다. 이처럼 외국인 사역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힘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직접 경험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믿어요. 우리나라에 큰 나무가 있어요. 적어도 30-40미터예요. 그 나무는 덩치가 크지만 아주 가치 없는 나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나무를 건축에서 사용 안하는 쓸모없는 나무죠. 근데, 갑자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원래 그런 나무라고, 너의 그 조상 때부터 그 나무라고. 쓸모없는 나무이지만 나는 이 나무를 사용하겠다고. 어떤 나무보다도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그 나무를 사용하겠다고. 옆에 있는 쓰러진 나무들을 세워주는 나무가 되고 사람과 동물들의 먹이와 쉼터가 될 거라고. 그들의 그늘이 되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참여자6)

외국인 사역자들의 스트레스 대처는 ‘인간적응’을 보여준다. 스트레스의 요인은 여러 가지 환경의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그들 자체가 그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적 열매이다. 외국인 사역자들은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되면서 이를 통해 자신의 변화와 성장이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결국 그들은 한국 교회에서의 사역을 통해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역공동체인 한국 교회 안에서 더 큰 소망과 비전을 갖는, 변화를 이루는 경험을 하게 된다.

5. 한국 교회에 대한 외국인 사역자의 요청 : 존중과 협력

외국인 사역자는 시작부터 한국과 한국 교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다. 부족한 언어, 오리엔테이션 없이, 눈치를 먼저 배우고, 시간의 흐름에 의지하여 한국 교회에 적응하고 있었다. 외국인 사역자는 한국 교회가 한국과 전혀 다른 문화에서 온 그들을 인정하며 존중해 주길 바란다. 또한 그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그들은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자마자 한국인처럼 ‘빨리 빨리’, 한국인과 똑같이 일하고 교회에 맞추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외국인 사역자들은 한국 교회가 이주민 선교에 대해 겸손한 자세를 갖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요청한다. 물론 그들은 스트레스 경험에 대하여 소명을 붙들고 극복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한국 교회를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을 모두 수용한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배움과 성장의 도구로 삼고, 참을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외국인 사역자는 스트레스의 모든 왜곡으로부터 점진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여전히 외국인 사역자들은 한국 교회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갖고 있으며, 한국 교회에게 존중과 지속적인 협력의 관계를 기대하고 있다.

“협력해야 돼요. 그리고 정죄보다는 겸손한 자세로 이해해주려고 하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받아들여 줘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바로 바로 똑같이 맞춰 달라고... 이해해주지 않고, 변화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지 않으면 맞춰줄 수 없어요. 이해해주고 협력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지.” (참여자4)

6. 한국 교회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일반적 구조

한국 교회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경험 구조는 Figur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제 각각의 참여자들의 경험 구조와 의미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본질적인 의미를 기술하고자 한다.

외국인 사역자들은 한국 교회 제도적인 특성과 교회 문화를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해야 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먼저 그들은 교회 내부의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와 갈등을 경험한다. 특히 한국 목회자들의 이중적이면서도 강압적인 태도에 대하여 ‘바리새인 같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성도들과의 관계는 때때로 ‘도움조차 부담스러울 정도’라고 한다. ‘모든 것을 한국어로’해야 할 때, 외국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목 받고 평가의 대상이 될 때, 참여자들은 자신이 ‘떨쳐진 책’과 같다는 느낌을 떨쳐 버리기 어렵다. 성과위주의 사역재정 지원으로 인해 좌절감을 맛보았으며, 교회 직분자에게 설교 내용을 감시당할 때는 자신이 사역자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서운함과 동시에 역할의 모호함도 느낀다. 이처럼 한국 교회라는 제도권 안에서 사역에 대한 부담과 제한적인 여건, 수직적인 제도와 복잡한 절차, 뿐만 아니라 직분에 따른 호칭과 예절, 여성에 대한 편견 등 다양한 문화적 영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불명확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절차와 더불어 교회 직분(참여자들은 ‘등급’처럼 이해했다)에 따른 사역자들과 직분자들 사이의 불편하고 묘한 관계까지 눈치로 살펴야 했다. 외국인 사역자들은 한국 교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눈치껏 해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말한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사역자들은 위에 제시된 수많은 정보들과 복잡한 역동성을 빠른 시간 내에 입력, 기억, 그리고 실행해야하므로 쉽게 과부하로 인한 한계에 직면한다. 그리고 곧장 스트레스는 포화상태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다.

외국인 사역자의 또 다른 스트레스는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발생했다. 먼저 앞서 논한 한국 교회에서 경험한 부정적인 관계와 사역에서 오는 여러 좌절감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실패자라고 느낀다. 낮은 자존감, 자기부정,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표현했다. 주말만 되면 담임 목사에게 야단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 그들은 기쁨이 없고 부담스러운 날이 주일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역을 포기하고 어디든지 떠나고 싶다’는 자유를 향한 갈망이 뒤섞여 심리적인 갈등을 보였다. 낮은 사례비로 생활도 어려운데 재정 사용에 간섭과 조언까지 듣다보니 가족을 도와주기는 커녕 스스로 독립할 수조차 없는 자신의 망막한 형편을 직시한다. 한국어 실력은 쉽게 늘지 않아 매번 시험 기간이 되면 ‘선택과 포기’를 반복해야 한다. 한국 학생들 속에 끼어들기도 쉽지 않고, 때때로 학교직원의 부당한 대우나 하대도 참아야 했다. 참여자들은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신경증과 ‘심장이 쿵쿵쿵쿵 한다.’라고 할 정도의 극심한 신체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반면, 참여자들은 한국 교회에서 사역자로 사역하기 전, 자신의 고국에서는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모른 채 살아왔다고 한다. 한국 교회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도 이해했다. 참여자들은 그들 주위에 있는 지지그룹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전환하고자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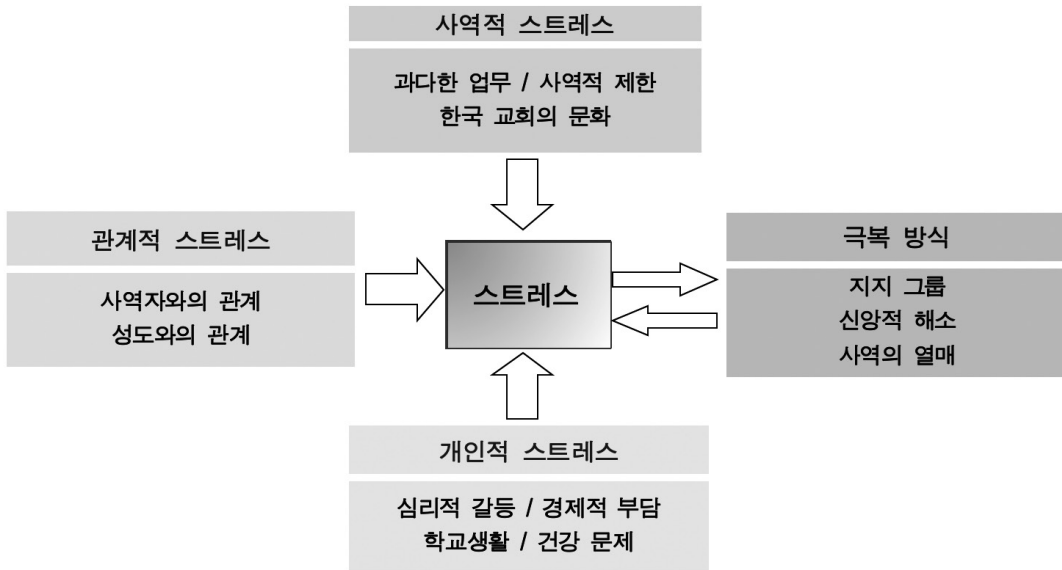


Figure1. Structure of Stress Experiences of Foreign Ministers in Korean Churches

도와 말씀생활을 더 깊이 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손길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했고, 더욱 더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게 되었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사역을 통해 이주민 성도의 신앙적 성장을 보게 되었고, 이로써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경험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회적 경험과 지식이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경험과 구조 이해를 위해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탐색하였다. 자료 분석결과 스트레스 경험 요인은 최종적으로 5개의 구성요소와 13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5개의 구성요소는 ‘관계적 스트레스’, ‘사역적 스트레스’, ‘개인적 스트레스’, ‘스트레스 극복방식’ 그리고 ‘한국 교회에 요청’으로 분류된다. 하위 구성요소를 종합해 보면 갈등 관계와 자신에 대한 평가, 교회 사역에 대한 부담과 제한, 그리고 심리적인 갈등과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사역자는 그들을 지지하는 그룹과 사역의 열매, 특히 성도와 자신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소명을 통하여

자신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있다.

먼저 5개의 구성요소 중 3가지 스트레스 구성요소를 통해 전체적인 맥락에서 외국인 사역자들과 한국 목회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경험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사역자들과 한국 목회자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호 관계성과 교회 시스템 내의 경험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귀결 된다는 것이다. 먼저, 상호 관계성에서 오는 스트레스 경험은 오탉균(2009)의 한국 목회자의 탈진에 관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국 목회자는 사역현장에서 당회와의 갈등, 교인들과의 갈등, 원로목사와의 갈등, 부교역자와의 갈등, 사모와의 갈등 등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외국인 사역자도 한국 목회자와 한국인 성도, 그리고 외국인 성도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 목회자가 목회에 더 헌신적일 수록 탈진하기 쉬우며(고병인, 2004; 김상복, 2009), 이상주의적이며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이기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김상복, 2009). 따라서 한국 목회자가 과한 사역의 범주와 자신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갖고 있게 되면 이를 외국인 사역자에게 그대로 투영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대물림되는 것이다.

외국인 사역자가 교회의 장학생인 이유로 언제나 ‘예스맨’이 되어야 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와 한국 목회자가 성도들의 요청에 거절하지 못한 채, 과도한 페르조나(persona)를 사용하여 나타나는 우울과 탈진(고병인, 2004; 하재성, 2015)은 유사한 맥락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서양의 목회자들 또한 일반적으로 다른 전문가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삶은 거의 항상 전시되고, “어항”에서 산다는 느낌으로 이어진다(Moss, Sonodgrass, 2020). 그럼에도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서양의 목회자들과 다르게 한국 교회 목회자는 체면 문화(shame culture)에 익숙하여 자신의 실제 모습을 좀처럼 잘 드러내지 않는다(오탉균, 2009). 외국인 사역자 역시 자신의 말과 행동에 따라 평가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과 깊이 교제하지 못하는 한국 목회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 사역자는 한국 교회와 이주민 성도들 간에 중재역할을 해야 할 상황에 자주 직면하고, 대부분의 경우 한국 교회의 편에 서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한국 문화와 모국의 문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부담을 떠안고 있다.

다음으로 외국인 사역자들과 한국 목회자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교회 시스템 속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는 한국 목회자의 과도한 사역 업무에 관한 내용(이유경, 2014; 하재성, 2015; 변재봉, 2018)에서 발견된다. 특히 변재봉(2018)은 신대원생의 직무스트레스와 역할스트레스가 탈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과 부담’이라는 과도한 직무 요구가 부정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된다고 보았다. 하재성(2015)은 과도한 성과주의가 지닌 폭력적 성격으로 인해 목회자가 스스로를 착취하고 억압하도록 만들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실제적인 착취와 억압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표출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 사역자들이 경험하는 과도한 직무 요구와 성과 부담은 고스란히 외국인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과 요구사항으로 전달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사항이 그들을 엮매이게 하여 유사한 스트레스를 발생 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목회자의 스트레스와 탈진에 대한 연구(김준수, 2007; 이관직, 2009)에서 탈진의 원인으로 과도한 업무 외에 불분명한 사역의 경계를 꼽았다. 한국 교회 목회자는 ‘job description’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스스로 알아서 눈치껏 해야 하며, 심지어 사례비 거론도 비신양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 교회조직 속에서 담임목사나 장로들에게 사역의 영역을 침범 당하거나 책임은 주어지지만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즉 사역의 불분명한 경계로 무기력함을 느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 사역자가 담당 집사에게 설교와 사역의 권한, 재정사용에 대하여 통제받을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유사하다. 특히 ‘돈 문제 언급 금지’와 ‘눈치껏 해야 한다’는 점은 한국 목회자와 외국인 사역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제이다. 이처럼 외국인 사역자는 교회 시스템 내 명확하지 않은 역할과 책임 규정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교회 시스템 내에서 외국인 사역자는 대다수의 한국 목회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병인, 2004; 오탉균, 2009). 이유경(2014)은 40대 이상 미혼 여성사역자들이 생계비가 부족한 열악한 형편과 부모를 부양해야하는 책임 때문에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사역자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이 흔들리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외국인 사역자의 경우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하는 것마저도 통제되거나 비밀로 삼는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생활과 부모에 대한 이중적 책임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심리적, 신체적으로도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박미경(2019)은 기독교 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여 목회자의 생존권과 평등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례의 원리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김상복(2009), 이홍배(2009: 188-189), 이유경(2017)과 같은 맥락에서 사례비의 하한선을 정하여 최저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단 차원에서 최대한 재정보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전문 상담가를 통하여 개인분석과 코칭, 심리 상담 등을 실시하고, 사역자의 자아와 통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트레스 검사와 필요한 각종 검사를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하재성, 2015; 변재봉, 2018). 이로서 한국인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함께 세워가야 할 동역자인 외국인 사역자에게 전인적인 회복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목회자와 외국인 사역자의 사역적 스트레스에서 차이점이 있다면, 먼저는 한국 교회 내의 문화충격이다. 외국인 사역자는 계층적이고 수직적인 구조에 익숙하지 못하다. 특히 교회 직분과

그 호칭에 담긴 권력 구조는 유교문화와 혼합되어 복잡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전해영(1998)은 한국어 호칭의 형태적 특징과 사용방식은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의 문화와 함께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한국은 대인 관계를 상하의 서열 관계로 보고 있으며, 그에 대한 윤리를 규정하는 유교 문화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언어 문화권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미로 한규석, 최상진(1998)은 한국과 같이 고맥락적 언어 문화권 속에서 눈치는, 아랫사람이 주로윗사람에게 보이는 겸손한 행위의 표현으로 오랫동안 함께 지내 온 사이라면 눈치로 서로의 흥중을 읽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원범(2008)은 한국 교회의 직분이 본래의 섬김의 정신이 아닌 유교문화에서 동화된 현상인 서열, 즉 계급(권위)의 관점에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서열과 계급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진 직분과 호칭은 한국 교회 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직분과 호칭은 외국인 사역자에게 고압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동시에 문화충격과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김상복(2009)은 외국인 사역자의 목회자 양성제도를 강화하여 담임 목사의 철저한 인턴십을 받도록 받는 것을 제안하였다. 인턴십을 통해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고 목회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인 신대원생과 외국인 사역자의 지지그룹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사역자는 학업과 사역에 있어서 오는 스트레스를 지지 그룹과의 만남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즉 지지 그룹이 건강하고 인간적인 삶으로 통합되는 근거(Hand, Fehr, 2002: 127)가 되어 스트레스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인 신대원생들은 성과 중심의 교회 제도 안에서 주변에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 자원, 특히 주변 동료들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변재봉, 2018). 뿐만 아니라 한국 신대원생은 높은 성과를 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경쟁 사회에 몰려있다. 이에 비해 아직까지 외국인 사역자는 사역자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지그룹이 될 수 있는 주변 동료들을 경쟁상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연구된 목회자의 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최성상, 김미경, 2021)에서 스트레스는 단순히 목회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소진을 넘어 가족과의 관계와 소명의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장기간 목회를 한 경우 목회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소명의식이 소진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상반되게 외국인 사역자는 이주민의 회심과 영적 성장,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한 사역의 의미를 곧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소명의식으로 연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역적 의미로 인해 스트레스가 감소되거나 견딜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인간 피조물이 더욱 하나님에게 밀접하게 관계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욱 더 완전하게 개체화되게(individuated)되며, 성취를 이룰 수 있다(그는 더욱 개인적인 ‘힘’을 경험

하게 된다)고 본 Hands, Fehr(2002)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 한편으로 외국인 사역자들의 소명의식은 그들이 이주민의 회심과 영적 성장을 곧, 선교적 부르심과 사역자로서의 성장으로 동일시 여기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손영득(2021)은 목회자의 위치 변화, 즉 다른 사람이 적수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서, 사역이 고용이 아닌 봉사가 되는 삶 속의 소명(vocation)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외국인 사역자들은 한국 교회에서 사역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지만 실제로 그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의 철저한 영적인 빈곤(poverty of spirit)을 인정함으로써 영적으로 새로워지는(spiritual renewal)기회를 통해 소명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명은 극한 스트레스를 견디게 하는 가장 큰 원천이 되며, 선교의 동역으로 위치 변화하고 있다. 스트레스의 대처 기능이 상황과 감정을 조절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자아와 더 큰 공동체 모두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Aldwin, 1994: 190).

결론적으로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연구는 참여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어떤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한계 속에서 사역자로 세워져 간다는 교육적인 경험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서열과 계급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교회의 직분에 대한 부정적인 스트레스 현상을 경험하였으나, 역경을 통한 성장은 긍정적으로 인식된 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는 적절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이 성장에 긍정적으로 연관됨으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Linley 외(2004)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외국인 사역자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 그리고 고국의 복음화를 위한 소명으로서의 위치 변화(손영득, 2021: 145)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사역자들이 직면하는 스트레스 경험은 한국 교회와 성도, 그리고 학교라는 사회 문화적 배경의 요구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이에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와 신념을 고찰하게 하였고 이를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는 곧 한국 목회자의 스트레스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 목회자의 스트레스와 탈진의 진단과 해소 방식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나 한국 교회 사역자들의 고질적인 스트레스와 탈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국 교회 내 동역하고 있는 외국인 사역자들에게까지 대물림 된다는 점에서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수와 대상의 한계점이다. 연구 참여자의 수적인 제한으로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경험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함으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둘째, 장·단기 사역의 경력별 차이점을 예상할 수 있지만 이를 기초로 한 분석을 심도 있게 연구하지 못하였다. 셋째, 각 연령층이 갖고 있는 특성을 따라 심화, 분류하여 스트레스 경험에 대해 세부적인 연구를 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이어 동서양을 포괄하는 외국인 사역자들을 사역 경력별로, 혹은 선교단체나 교회 등 다른 사회적 환경에 있는 외국인 사역자들의 스트레스 경험을 구체적으로 비교 연구하고, 실제로 스트레스 극복 방식들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사역 만족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까지 더 깊이 있게 살펴 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외국인 사역자들을 위한 선교적, 목회상담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고병인 (2004). 한국 목회자의 스트레스와 탈진의 현주소. **목회와 신학**, 9월호, 154-161.
- [Ko, B. I. (2004). The current state of stress and exhaustion of Korean pastors. *Ministry and Theology*, September, 154-161.]
- 구성모·김보현·노윤식·서영원·신상록·윤승범·이수환 (2015). **다문화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Koo, S. M., Kim, B. H., Noh, Y. S., Seo, Y. W., Shin, S. R., Yoon, S. B., Lee, S. H. (2015). *Multicultural Mission*. Seoul: Christian Documents Mission.]
- 구성모 (2020). 이주민선교 사역자 육성의 실태와 훈련방법. **복음과 선교**, 제51집, 55-88.
- [Koo, S. M. (2020). The actual situation and training methods of fostering migrant missionaries. *Evangelical Missiology*, vol. 51, 55-88.]
- 국제한국학회 (1998). 한국어에 반영된 유교 문화적 특성. 전혜영 (편), **한국문화와 한국인**(pp. 233-258). 서울: 사계절출판사.
- [International Korean Society (1998). Confucian cultural characteristics reflected in the Korean language. Jeon, H. Y. (ed), *Korean Culture and Koreans*(pp. 233-258). Seoul: Four Seasons Publishing House.]
- 김동화 역 (2018). **선교와 문화인류학**. Hiebert, Paul G. (1985).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서울: 조이선교회 출판부.
- [Kim, D. H. (2018)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Seoul: JOY Mission Press. Trans. Hiebert, Paul G. (1985).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Grand Rapids, Mich.: Baker Book House.]
- 김상복 (2009). 목회자 탈진의 원인과 대처방안. **성경과 상담**, vol. 9, 203- 234.
- [Kim, S. B. (2009). Causes and countermeasures for pastor exhaustion.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vol. 9, 203-234.]
- 김영천 (2012). **질적연구방법론**.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Kim, Y. C. (2012).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Paju: Academy Press.]
- 김준수 (2007). 목회자의 스트레스와 탈진. **복음과 상담**, 8권, 33-58.
- [Kim, J. S. (2007). Pastoral stress and exhaus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Vol. 8, 33-58.]
- 박미경 (2019). 기독교 경제 윤리에 기초한 한국 교회 목회자 사례비 운영의 제안 : M교단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제60집, 261-303.

- [Park, M. K. (2019). Proposal of the management of compensation for pastors in Korean churches based on Christian economic ethics: Focusing on the M denomin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vol. 60, 261-303.]
- 변재봉 (2018). 신대원생의 직무스트레스와 역할스트레스가 탈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목회상담적 함의.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제4차 신학포럼**, 7-42.
- [Byun, J. B. (2018). Pastoral counseling implications on the effects of job stress and role stress in burnout of new graduate students. *The 4th Theological Forum of the Korean Evangelical Practical Theological Society*, 7-42.]
- 서한비, 정찬용, 유수옥 (2018).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에 대한 스트레스 경험. **한국장기요양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04.
- [Seo, H. B., Jeon, C. Y., Yoo, S. O. (2018). Stress experiences of foreign students about Korean culture. *A Collection of materials of the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long-Term Care*. 204.]
- 석창원 (2016). 교회(목회)로서의 이주민 사역. **한국선교 KMQ KWMA**, 겨울호, 29-14.
- [Seok, C. W. (2016). Migrant ministry as a church(pastoral). *Korea Mission Quarterly*. Winter, 29-14.]
- 손영득 (2021). **공감적 피로의 영적 외상 이해**.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Son, Y. D. (2021). *Understanding the Spiritual Trauma of Empathic Fatigue*. Seoul: Chriatian Documents Mission.]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외 (2013).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Shin, K. R., Cho, J. O., Yang, J. H. et al. (2013).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오태균 (2009). 목회자의 탈진에 대한 교회 교육학적 과제. **기독교교육정보**, 22, 293-325.
- [Oh, T. G. (2009) Church pedagogical challenges to pastoral exhaustion. *Chria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22, 293-325.]
- 윤대진 (2016). 이주민 선교를 위한 현지인 지도자 양성방안. **한국선교 KMQ KWMA**, 겨울호, 63-73.
- [Yoon, D. J. (2016). A plan to cultivate local leaders for migrant missions. *Korea Mission Quarterly*, Winter issue, 63-73.]
- 이시은 역. (2019). **당신의 뇌를 고칠 수 있다**. O'Bryan, Tom. (2018). You can fix your brain. 서울: (주)로크미디어.
- [Lee, S. E. (2019). You can fix your brain. Seoul: Lock Media Co., Ltd. Trans. O'Bryan, Tom. (2018).

- You can fix your brain*. N. Y.: Rodale Books.]
- 이유경 (2014). 40세 이상 미혼 여성사역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25(3), 219-248.
- [Lee, Y. K. (2014). A study on the stress experience of unmarried female ministers over the age of 40.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 Psychology*, 25(3), 219-248.]
- 이정기 역. (2002). **성직자를 위한 건강한 영성**. Hands, Donald R. & Fehr, Wayne L. (1994). *Spiritual Wholeness for Clergy*. 서울: 예영미디어.
- [Lee, J. G. (2002). *Spiritual Wholeness for Clergy*. Seoul: Yeyoung Media. Trans. Hands, Donald R. & Fehr, Wayne L. (1994), *Spiritual Wholeness for Clergy*. New York: Harper Trophy.]
- 이흥배 (2009). **목회자 탈진 클리닉**. 서울: 엘멘출판사.
- [Lee, H. B. (2009). *Pastor Exhaustion Clinic*. Seoul: Elmen Publishing House.]
- 임성빈 (2008). **기독교 문화와 한국문화**.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Lim, S. B. (2008).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culture and the Korean church. Jung, W. B. (Edition) *Christian Culture and Korean Culture*(pp. 63-97). Seoul: Yeyoung Communication.]
- 전혜영 (1998). 한국어에 반영된 유교 문화적 특성. **한국문화와 한국인**. 233-258.
- [Jeon, H. Y. (1998). Confucian cultural characteristics reflected in the Korean language. International Korean Society. (Edition) *Korean Culture and Korean*(pp. 233-258). Seoul: Four Seasons.]
- 정원범 (2008). 한국문화와 한국 교회의 관계유형의 변천사. **기독교 문화와 한국문화**. 63-97.
- [Jeong, W. B. (2008). A History of Changes in Relationship Types between Korean Culture and the Korean Church. *Christian Culture and Korean Culture*(pp. 63-97). Seoul: Yeyoung Communication.]
- 조성남, 이현주, 주영주, 김나영 (2017). **질적연구방법과 실제**. 서울: 그린.
- [Cho, S. N., Lee, H. J., Joo, Y. J., & Kim, N. Y. (2017).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practice*. Seoul: Green.]
-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18).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Creswell, John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학지사.
- [Cho, H. S., Jeong, S. W., Kim, J. S., Kwon, J. S. (201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총회세계선교회(GMS) 다민족사역연합체 (2020). **2020년 국내이주민사역현황**. 인천: 엘림문화사
- [Global Mission Society(GMS) Multiethnic Ministries Coalition (2020). *Current status of domestic migrant ministry in 2020*. Incheon: Elim Munhwasa.]
- 최민수 역. (2007). **사역자의 자아 돌봄**. Oswald, Roy M. (1991). *Clergy Self-Care*. 서울: 도서출판 그리심.
- [Choi, M. S. (2007). *Clergy Self-Care*. Seoul: Grisim Pub. Trans. Oswald, Roy M. (1991). *Clergy Self-Care*.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최성상, 김미경 (2021). 목회자의 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가족탄력성과 소명의식의 매개효과. **복음과 상담** Vol. 29. No. 1.
- [Choi, S. S., Kim, M. K. (2021). The effect of pastor's stress on burnout: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and sense of cal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Vol. 29. No. 1.]
- 최종철 (2002). **목회자 탈진의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대학원.
- [Choi, J. C. (2002) *A study on the factor analysis of pastoral burnout*. Masters Dissertation.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한규석, 최상진 (1998). 교류 행위를 통해 본 한국인의 사회심리. **한국문화와 한국인**. 159-293.
- [Han, K. S., Choi, S. J. (1998). Social psychology of Koreans seen through exchange behavior. International Korean Society. (Edition) *Korean Culture and Korean*(pp. 159-293). Seoul: Four Seasons.]
- Aldwin, Carolyn M. (1994).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 an integrative perspectiv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erry, J. W. (1991). Understanding and managing multiculturalism. *Psychology and Developing Societies*, 3. 17-49.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Charlick, S. J., Pincombe, J., McKellar, L., Fielder, A. (2016). Making sense of participant experiences: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in midwifery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Doctoral Studies*, 11, 205-216.
- Linley, P. A. & Joseph, S. (2004). Positive change following trauma and adversity: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1). 11-21.
- Gauger, Robert W. (2012). *Understanding the internal, external, and spiritual factors of stress and depression in clergy serving the southside of Jacksonville, Florida*. Doctoral Dissertation, Regent University, Virginia.

- Moss, L., Snodgrass, J. L. (2020). Interpersonal stress in ministry: The lived experiences of female clergy cancer survivor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48(3). 188-202.
- Schwarzer, R. & Nina, K. (2007). Foundation roles of social support within the stress and coping proces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over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2(4). 243-252.

한국 교회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Stress Experience of Foreign Ministers in Korean Churches

전 윤 조 (고신대학교)

논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교회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경험의 현상학적 본질 이해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는 외국인 교회사역자 6명을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하였다. 외국인 사역자의 스트레스 경험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하여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사역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경험요인은 5개의 구성요소와 13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나뉜다. 5개의 구성요소로는 관계적 스트레스, 사역적 스트레스, 개인 스트레스, 스트레스 극복방식, 그리고 한국 교회에 바람으로 분류되었다. 하위 구성요소를 종합해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사역 현장에서 사역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그리고 개인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사역자인 자신에 대한 한국인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불신, 존중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역할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으므로 기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역에 대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지그룹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사역자로서의 생활을 지탱하고 있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주제어: 외국인 사역자, 스트레스 경험, 한국 교회, 이주민 선교, 현상학적 연구